

#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재구조화 방안

## Restructuring Small Scale School



이 재 림 / 정회원,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Lee, Jae-Rim / Professor,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al Policy and  
 Administration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rim455@hanmail.net

### 1. 서론

소규모학교의 정의는 다양하다.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상대적인 측면, 그리고 어떤 기준을 정하여 그 규정 이하와 초과로 나눌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소규모학교는 도시 과대·과밀학교의 교육 여건의 열악화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소규모학교는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상적 규모의 학교를 의미한다. 반면,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소규모학교는 이상적인 학급수 및 학생수에 미달하여 그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소규모학교라는 용어에는 적정규모 학교의 개념과 적정규모 미달학교의 개념이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 이후 도시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이농향도 현상에 따라 농촌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부정적인 의미의 농촌 소규모학교는 계속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소규모학교가 야기하는 교육 효과와 교육 재정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1년부터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 통합과 학교 폐지 유형으로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학교는 그 지역의 중심축으로써 지역 사회와 매우 긴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된 기관이다. 따라서 교육적인 목적만을 위해 기준을 적용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추진은 사실상 지역사회에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2009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중전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목표로 정책을

개선하면서 유형을 다양화하여 학교이전·통폐합·재배치 등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였다.

소규모학교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적정규모학교로 육성하여야 하는 당위성에 비추어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지역사회와 학교를 모두 아우르는 정책으로서는 아직도 역부족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도별 당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들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실현 가능한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 2.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 2.1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방향의 다양화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향으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초·중·고 통합 운영 학교 육성, 학교 신설수요 적정관리, 농산어촌 소규모 병설 유치원 통폐합 등 다양한 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통폐합·이전 등에 따른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통폐합 본교나 폐교된 지역의 학생·주민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방향은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와 재정 운영에 대한 효율을 고려하고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정책으로 판단 할 수 있다.

#### 2.2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

2009년도 전국의 소규모학교는 농산어촌(읍·면·도시

표 1. 교육과학기술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

구분		초	중	고	계
농산 어촌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적정규모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사업 포함)	260	80	10	350
	도시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40	6	4	50
도시	도시지역 학교 이전	20	15	15	50
	(초·중·고) 통합 운영학교 <sup>1)</sup> 확대	50			50
계		332	144	24	500

<sup>1)</sup>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 소규모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통합 활용하는 학교

벽지)의 경우 학생수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가 1,765개교로 전체 농산어촌학교 4,972개교의 3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도시의 경우에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 도심지역의 공동화 등으로 학생수 2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는 270개교로 전체 도시지역 학교의 4.1%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계속되는 도시개발로 인하여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소규모학교 통폐합·이전·재배치를 통해 500개교를 적정규모학교로 육성하는 계획을 표 1과 같이 발표하였다.

표 1과 같이 교육과학기술부는 종전 통폐합만을 정책으로 추진하던 방향을 농산어촌 및 도시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400교, 도시지역 학교 이전 재배치 50교, 초·중·고 통합 운영학교 확대 50교로 전환하여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 2.3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학교로 육성하기 위해서 우선 통폐합 대상학교 기준을 종전 학생수 기준에서 시·도의 여건에 맞게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변화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산어촌 소규모학교가 통폐합을 할 경우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상향조정 하였다. 본교폐지 시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지원, 분교폐지 시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지원, 분교장 개편 시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이때 군 전체 초·중·고의 1/5 이상 또는 5개교 이상 통폐합 시 교당 연간 운영비 평균 9.25억원의 4배 내지 5배를 지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 5개교 통폐합 시 185억 내지 231억원을 지원하게 되는 정책이다.

둘째, 그간 통합 운영학교는 전국에 97개<sup>1)</sup>가 있으나

표 2.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정책

구분	통폐합 이후 지원 정책 요약
학교	통폐합 본교에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전원학교 지정 등
학생	폐지된 학교 학생들에 대한 통학 및 교육 지원 강화 (PC 구입, 급식비, 교복, 교통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현장학습비 지원 등)
지역	폐교 시설을 지역주민들의 교육·복지·문화·체육시설 등으로 활용, 학교를 지역거점 복합생활문화센터로 육성하여 주민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참여 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이 미흡하여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통합 운영학교를 농산어촌 지역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학교교육 모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차별화된 지원 유형에 따라 A-type은 1개 학교를 폐쇄하고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는 본교폐지에 준하는 정도의 20억원을 교육환경 개선 경비로 지원한다. B-type은 학교시설 폐쇄 없이 기존 인력·시설·용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분교장 폐지에 준하는 10억원을 지원하여 학교시설·설비의 현대화 지원 정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또한 모든 통합 운영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학교 운영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통합 운영학교 지도·감독 및 회계·사무관리 일원화, 조직·인사 관리의 합리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아울러 마련하게 되는 정책이다.

셋째,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도심지역은 공동화 현상 등으로 학생수 2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도시지역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학생수 기준 등을 시·도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연간 학교운영비 3배 내외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개발지역의 학교 신설을 대체하는 학교 이전·재배치의 경우에도 학교 신설에 준하는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통폐합 이후 지원 정책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 3. 대구지역 소규모학교의 재구조화 방안

- 대구시 하빈초등학교 및 동곡초등학교를 중심으로 -

#### 3.1 대구지역 소규모학교 위치 및 현황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에 위치한 하빈초등학교와 동곡초등학교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지역의 커뮤니티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는 학교이다. 하빈면에 위치한 2개의 소규모학교는 아래 그림 1,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치적으로

1) ① 초·중 통합 : 42교, ② 중·고 통합 : 49교, ③ 초·중·고 통합 : 6교

도시·지역, 학교의 입지와 배치

대구시 달성군 내 주요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특히 이웃한 다사읍보다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더욱 낮다고 볼 수 있다. 하빈초등학교 및 동곡초등학교의 학교 현황은 표 3, 학생현황은 표 4, 학교시설 현황은 표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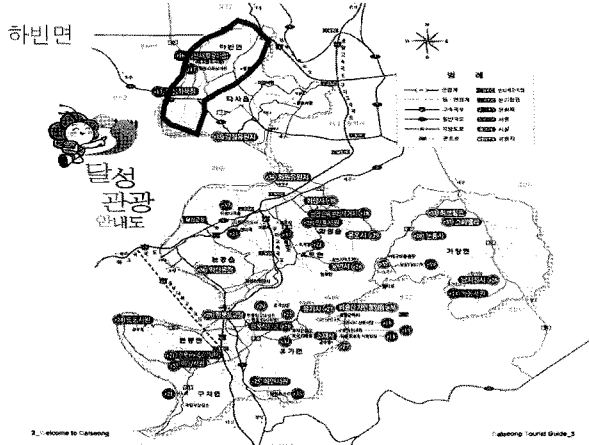


그림 1.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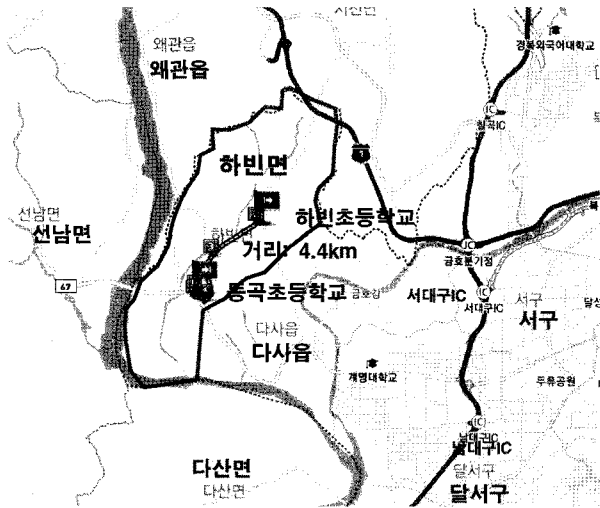


그림 2. 하빈초등학교 및 동곡초등학교 위치도

표 3. 하빈초등학교 및 동곡초등학교 학교 현황

구분	하빈초등학교	동곡초등학교
위치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현내리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동곡2리
설립주체	공립	공립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24. 4. 15. 하빈공립보통학교 개교</li> <li>1945. 9. 16. 하빈국민학교 개명</li> <li>1996. 3. 1. 대구하빈초등학교 개명</li> <li>1997. 3. 1. 대평초등학교와 통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40. 8. 20. 동곡국민학교 간이학교 인가</li> <li>1943. 4. 26. 동곡국민학교 개교</li> <li>1996. 3. 1. 대구동곡초등학교 개명</li> </ul>

표 4. 하빈초등학교 및 동곡초등학교 학생 현황

학교명	학년	1	2	3	4	5	6	계	유치율	
하빈초등학교	학급수	1	2 (1)	1	1	1	1	7 (1)	1	
	학생수	남	1	3	3	3	6	5	21	2
		여	2	1	1	4	1	4	13	5
	계	3	4	4	7	7	9	34	7	
동곡초등학교	학급수	1	2 (1)	1	1	1	1	7 (1)	1	
	학생수	남	6	4	3	7	3	8	31	3
		여	1	1	3	2	7	7	21	1
	계	7	5	6	9	10	15	52	4	

( )는 특수학급으로 본수에 포함

표 5. 하빈초등학교 및 동곡초등학교 학교시설 현황

구분	본관										부속건물				
	일반실	교장실	교무실	방송실	과학실	컴퓨터	도서/자료실	다용도실/보건실	조리실	식당	숙직실	행정실	화장실	사택/문화관	창고
하빈초교	7	0.5	1	0.5	1.5	1	1	2	1	1	0.5	0.5	2		3
동곡초교	7	0.5	1	0.5	1	1	1	0.5	1	1	0.5	0.5	2	1/2	2

3.2 대구지역 소규모학교 재구조화 여건 분석

1)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학교 대표성 선정

하빈초등학교의 경우 면 소재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달성군내에서 대구시 위성 신도시인 다사지역과 인접되어 향후 도시 외곽 주거단지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동곡초등학교의 경우도 지역사회 중심지역으로 하빈초등학교 보다 학생 수에서는 20여명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하고 있다.

두 학교의 대표성을 비교해 보면 하빈초등학교는 면사무소 및 우체국 소재지로 면 단위 대표성을 갖고 있으며 학교 운영자의 학교 운영 혁신을 통해 기존 학생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곡초등학교는 대구시에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다사지역과 인접하여 하빈초등학교 보다 학생 수가 약 20여명 더 많다. 따라서 두 학교의 대표성에서는 사실상 우열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향후 발전 가능성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향후 발전성에서는 대구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다사지역과의 근거리 인접성이 높은 동곡초등학교와 도로 연계망이 우수하여 향후 공동학교로 학구를 변경할 경우 학생

수의 접근성이 높은 하빈초등학교 모두 매우 유사한 조건으로써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두 학교 모두 주변 인구밀집도가 높은 배후 도시에 인접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기 때문에 단순 통폐합보다는 두 학교 모두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정책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학생 수 대비 교직원 배치 운영의 효율성

학교 규모 대비 교직원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하빈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34명에 교직원수는 17명으로 교사 1인당 평균 2명의 학생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동곡초등학교는 학생 수 52명에 교직원수는 21명으로 교사 1인당 평균 2.5명의 학생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적정규모 학교의 학급당 인원 35명과 비교해 볼 때 관리직의 중복, 학급규모의 소규모화로 인한 교사수의 증대 등 교직원 배치 운영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3) 교육과정 운영측면에서 효율성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하빈초등학교는 6명, 동곡초등학교는 9명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여건 개선 사업으로 제시한 학급규모인 35명의 1/6 내지 1/4 수준으로써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는 학생 개인별, 수준별 교육이 가능한 최적의 여건이라 할 수 있으나 교사 1인당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는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학급 규모를 현실에 맞게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 하여도 바람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15명에서 20명 정도의 학생수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4) 방과후 학교 운영

하빈초등학교와 동곡초등학교는 두 학교 모두 농촌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방과 후 학교를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학교가 위치한 입지적 여건으로는 필요한 지원이며 특히 거주 학부모 입장에서는 공교육에서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어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전체 학생수가 34명인 하빈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지원과 교직원의 적극적인 노력 및 홍보에 의해 현재 재학생 이탈은 없으나 향후 자연감소에 의한 점진적 학생수 감소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3.3 대구지역 소규모학교 재구조화 방안

대구시 하빈면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하빈초등학교는 1920년대 개교한 하빈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있는 학교로서 동문회 등이 활성화되어 있어 지역사회와 함께 방과 후 학교의 활성화 등 학교 살리기에 자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동곡초등학교는 하빈초등학교 보다 전통은 짧으나 대구시 배후 중심권 지역과 대로에 인접해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교이다. 농어촌 지역의 전형적인 소규모학교인 하빈초등학교와 동곡초등학교의 학교규모를 보면 교육과정 운영상 극히 소규모로 비효율적인 학생 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라는 교육기관이 갖는 특성상 지역의 구심점인 중심시설로서 폐교가 된다면 중심 공공시설의 상실에 따른 폐허로 인해 지역사회에까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 규모학교인 두 학교를 적정규모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학교의 공존과 효율적인 학교 운영 측면을 비교한 재구조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1) [1안] 1교로 통폐합하는 방안

대구시 도시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학생 수가 많은 동곡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빈초등학교를 폐교하여 통폐합 운영하는 방안으로서 현재 하빈초등학교 운영을 위한 교직원 17명과 학교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반면 하빈초등학교 학생이 동곡초등학교로 통학하기 위한 학생 통학용 차량 구입 운행에 따를 비용이 수반된다. 또한, 다사지구의 인구 밀집도가 높을 경우에는 학교용지로서의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2안] 두 학교 모두 존속 운영 방안

두 학교를 존속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생 수의 증대가 필수적이다. 즉, 현재 학생 수 34명과 53명의 학교 규모를 최소한 100여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최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하빈면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교육재정 투자와 특성화, 자율화된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구성원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인근 대구시 다사지역의 과밀학교를 해소하고 하빈초등학교와 동곡초등학교로의 학생 전입을 위해서는 다사지역의 거주 학생에게 두 학교 모두 공동학구 개방이 필요하다고 본다.

3) [3안] 1개 학교로 통폐합하되 학교시설은 공용으로 활용하는 방안

하빈초등학교와 동곡초등학교를 학교 구성원 및 지역사회

도시·지역, 학교의 입지와 배치

회와의 협력을 통해 1개 학교로 통합하되 통합한 모(母)학교는 두 지역의 각 학교에 분실형 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는 두 학교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통폐합 효과를 얻고자 하는 방안으로 동곡초등학교에는 4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고학년을 배치하고 하빈초등학교에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저학년을 배치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효과를 높이고 교육 재정 운영 측면에서도 효율을 도모하는 방안이다.

위치적으로 도시지역에 인접한 동곡초등학교에는 하빈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고학년 학생 23명을 배치하고 하빈초등학교에는 동곡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저학년 학생 11명을 배치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두 학교를 1개의 학교로 통폐합하면 학생수는 86명이나 학급 수는 종전과 같이 6학급이므로 교직원 운영 측면에서 종전 절반의 인원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3.4 검토 결과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내 위치한 두 학교간 거리는 4.4Km로 두 지역의 특성상 어느 한 쪽 지역 학교로의 통폐합은 학교가 지역의 중심기관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향후 대구시 달서구의 자가 양등과 대구시 달성군 다사지역의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가 증가될 가능성이 예측되므로 기존 학교의 학교용지는 유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구시 하빈면 하빈초등학교와 동곡초등학교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

한 재구조화 방안으로는 1개 학교로 통폐합하되 학교 시설은 공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두 학교를 통합한 후 교직원 소요인원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과 같이 동곡초등학교와 하빈초등학교 각각 운영 시 총 28인의 교사가 필요하나 1교로 통합 운영 시 18인의 교사만 있어도 동일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며 보직교사, 사서교사의 증원으로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 연간 10인의 교직원 인건비 절감 비용과 통합 후 절감되는 인력을 활용하여 방과 후 학교 운영 프로그램이나 원어민을 활용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등에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소규모학교의 경직된 교육과정을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적인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개선한다면 만족도 향상과 교육 재정 절감 모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년 이동에 따른 여유 교실 발생에 따라 확보된 여유교실에서의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시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각 지역의 근린 공공시설과의 연계성을 통한 부족한 문화 및 복지 영역 지원,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자율학교 지정 등을 통해 교육과정의 활성화, 인근 다사지역 학교와의 공동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학생 증가에 의한 적정규모학교로 육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방안도 두 학교를 하나의 학교로 통합운영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그간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사회 전반의 정서는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선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하빈초등학교와 동곡초등학교는 모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는 학교이므로 통합된 학교로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지역과 연계하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여 두 지역사회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저학년 중심과 고학년 중심의 캠퍼스로 재편 후 발생하는 각 학교의 유휴교실은 지역사회 내 부족한 공공서비스와 문화·복지서비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복합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다.

4. 시사점

농산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의 측면에서 도시지역 적정규모학교의 수준 보다 전문 교과 수업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학교 운영을 위한 교직원 배치 운영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한편 소규모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는 학교가 오랜

표 6. 현재 및 통합 시 소요 교사 수 비교 분석

구분	현재 교사 수			통합 시 소요 교사 수	비고
	동곡 초교	하빈 초교	계		
학년교사	6인	6인	12인	6인	학년별 1학급 운영
보직교사	5인	4인	9인	6인	
행정직원	3인	2인	5인	4인	통합운영 시 1명 증원
보건교사	1인	1인	2인	1인	하빈초교의 경우 지역 보건소 이전 유치
사서교사	-	-	-	1인	고학년 위주 배치, 순회
계	15인	13인	28인	18인	

기간 그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중심적 역할에 의미를 두는 지역주민의 정서상 학교를 유지하려고만 한다. 하지만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역할에 비중을 두고 소규모학교의 비효율적 운영과 지역사회 정서를 모두 고려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 농산어촌(읍·면·도서벽지)지역에는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아울러 저출산의 영향으로 소규모학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1개면 내 위치한 다수의 소규모학교의 경우, 통폐합을 통해 거점학교를 지역의 중심 학교로 집중 육성하고, 지역 정서에 따라 1개 학교의 시설 공동 이용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의 규모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는 차지고 교육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전국 곳곳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 돌아오는 학교 만들기 등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따라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하면 유명무실한 정책이 되고 만다. 따라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통폐합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폐합을 검토할 경우 학생 통학을 위한 거리와 함께 각 지역의 생활권 차이에 따른 정서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과 여건에 따라 초·중 통합이나 중·고 통합 같은 학교급이 다른 학교와의 통합운영은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운영에 따른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다른 지역의 동일 학교급과의 통폐합과 통합 운영을 비교 분석하여 유연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에서 통폐합을 반대하는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협력 제도나 절차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통폐합에 따른 통학구역이 넓어질 경우에는 학생 통학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학교 통학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생 교육과정 개선,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돌봄교실 등에 의한 정서적 안정 등을 통해 통폐합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시·도교육청차원의 지역 여건을 감안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1. 이재림 외 7인, 학교시설 수요 적정관리를 위한 연구, 대구 시교육청, 2010
2. 교육인적자원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학생 수용 및 학교설립 지원기준, 2006. 7
3. 교육기술과학부,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 추진계획」 발표자료, 2009. 6
4. 하빈초등학교, 학교교육계획, 2010
5. 동곡초등학교, 학교교육계획, 2010